

심사평

심사위원 김현섭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것이고 향후 관련된 연구들도 뜻깊은 선구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접근하기만도 어려운 연구 대상을 현지 조사만 6년에 걸친 긴 호흡의 연구를 수행해 내는 데는 학문적 호기심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애정, 도전정신, 신념, 인내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생생히 살아 있는 실물을 중시하고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적 수용력도 빛납니다. 연구에 필요한 기반 역량을 쌓는 등의 저자의 비상한 노력이 감동을 줍니다. 연구의 성과,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해 새로 생성한 자료들은 건축학 분야를 넘어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알려져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연구가 부진한 이슬람 문명권의 도시건축 분야 연구에도 성채와 모스크 건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토속건축과 기념비건축을 아울러 장구한 세월에 걸쳐 펼쳐진 한 문화권 전체의 건축역사를 서술하려면 일반적인 접근과 다른 차원의 연구 틀과 서사 방식이 요청되는 법인데, 예를 들어 역사이론가 쟈퍼가 건축의 기술적(또한 관념적) 기본요소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의 상호결합으로써 양식이 형성되며 우열이 가려진다는 비교문명연구의 관점을 어렵게 세워야 했음을 떠올려 볼 만합니다. 저자의 접근방식은 이와 무관하지는 않되 독자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 세기 전 덕슨 등의 기존 연구가 오리엔탈리스트적인 관점에서 한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관계를 무시한 것을 극복하는 데 응모자가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모자는 쿠르드인의 삶과 문화에 대응되는 건축의 목적, 형태, 재료, 건설을 포괄적으로 설명했고, 세계문화유산 제도 등 현실에 대한 반성도 진지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유목-반유목-정착이라는 인류의 중요한 삶의 패턴에 대응하는 건축유형은 몽골과 투르크 등 다른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진지한 학문과 실천을 위한 도전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응모자는 쿠르드 건축의 찾아보기 힘든 전문가로서 연구성과를 심화해 나아가겠지만, 그 토대 위에 관련된 타 문화권 건축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 역량도 충분히 보여 향후의 연구 활동이 무척 기대됩니다. 학술 연구의 지평을 과감히 넓히고 깊이 있게 천착한 성과를 도출해 지금까지의 여느 수상작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을 제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5회 심원건축학술상 수상작으로 임한솔의 <원림으로 다스리다 : 조선시대 감영 원림의 역사와 미학>이 선정됐다. 이 응모작은 조선시대 관영 원림 중 하나인 감영 원림을 주제로 그 역사적, 사상적 배경으로부터 사례와 의미 해석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건축사와 조경사를 가로지르는 연구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감영 원림 연구의 공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료-자료를 유형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고찰한 점이 두드러진다. 책의 구성에 있어서는 신유학의 사상적 배경, 전거로서의 중국 원림 및 조선 초 도성 원림, 조선시대 지방 감영의 형성과 발전 양상, 감영 원림의 특성과 의의를 차례로 다룸으로써 내용의 흐름에 논리성과 자연스러움을 기하고 있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강조했다 듯 이 책은 감영 원림의 "현상 파악을 1차 목표"로 하되 "현상의 해석"을 적극 시도한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1장 "신유학과 조선의 원림"은 해석의 틀로, 5장 "감영 원림의 특성과 의의"는 그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의 틀 및 결과가 그 사이 본문(2장~4장)과 더 긴밀히 관계 맺었다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예컨대, 5장은 본문의 사례를 더 적극 언급하거나 추가적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몇몇 발견되며, 1장과의 수미상관성을 더 강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누정, 성루, 장대 등은 각각이 원림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지만 원림 자체는 아니라 하겠는데, 이들을 원림과 등치시켜 서술한 표현이 종종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최남섭의 응모작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과 돌 건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주제로 "건축사 연구의 빈틈"을 채우는 흥미롭고 가치 있는 연구라 하겠다. 비록 아쉽게 낙선했지만 이 연구는 건축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류학적,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저자는 그동안 타자의 시선으로 단순화시켜 봤던 쿠르드 건축을 가급적 내부자적 시선으로 보고자 했는데, 특히 현지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몸소 현장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 연구만의 미덕이자 가치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검은 천막과 돌 건축을 쿠르드 건축의 기본 유형으로 설정하고 그 역사적 변천을 세 단계로 나눠 원점-확장-축소라는 통시적 패턴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패턴은 다소 단순화된 면도 없지 않은 듯한데 (일례로 필라간의 네 가지 주택 유형은 "원점"의 "축소"이기도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대적 조류에 맞춘 "확장"으로 볼 수는 없는지?) 우리에게 낯선 쿠르드 건축사를 조망하는 데에는 유용한 틀로

심사평

심사위원 김영철

배재대학교 주시경대학 교수

작동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들춰낸 점도 이 연구의 추가적 의미로 보인다. 반면, 이 연구는 쿠르드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관점에서 '왜 쿠르드인가'에 대한 입장이 부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서론에 내비친 "세계 최대의 비국가적 집단"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로 추측되지만, 유사한 비국가 집단이 많다고 하니 그들과 다른 쿠르드인만의 독특성(혹은 공유된 보편성)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이 연구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면 훨씬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언어" 문제 등에 견준 "민족" 또는 "민족 공동체"라는 용어 및 개념의 타당성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쿠르드 건축의 원점으로서의 천막(지붕)과 그 재료(직물) 및 들집의 벽체에 대한 강조는 건축의 원초적 모티브에 대한 19세기 쟁퍼의 인식을 떠올리는데, 쿠르드의 사례에서 불자리(hearth)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점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추후 더 연구할 만한 흥미로운 영역으로 보인다.

모두 다섯 편이 응모한 금번 제15회 심원건축학술상은 전회 차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매우 고무적이다. 본선에 오른 두 응모작은 모두 나름의 가치가 뚜렷해 어떤 것이든 수상작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심사자의 눈에 두 응모작은 우열이 있다기보다 우리 건축사 연구의 서로 다른 양상을 펼쳐 보여주는 것 같다. <원림으로 다스리다>가 그동안 건축사와 조정사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돼 온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관영 원림의 관점을 확장시켰다면,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과 돌 건축>은 그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해외 주제에 대한 생생한 현장연구를 드러내며 한국건축사학계의 지평을 넓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내용과 형식 전반에 걸쳐 좀 더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고 판단된 연구를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됐다. 두 연구자 모두에게 기꺼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

원림으로 다스리다 : 조선시대 관영 원림의 역사와 미학

주제 설정과 그 가치 응모작은 조선 시대 원림의 의미와 경영(감영), 그리고 그 구조와 이를 위한 신유학의 사상적 배경도 역사적 변천과 함께 탁월하게 보여주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던 정원이나 경원 개념의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원림 개념을 설정한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들은 응모작이 속한 학문 분야 성격을 명료하게 하며, 다른 분야, 특히 건축과 도시의 영역과 소통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혼재와 혼동으로 인한 불합리가 보이지 않는다.

응모작이 다른 주제의 범위와 성격 설정도 돋보였다. 국가(조선) 차원의 영역, 시대상 전체의 접근은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사항일 텐데, 연구자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들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응모작은 물리적이고 중성적인 물성의 구조뿐만 아니라, 사용의 기능과 사상적 배경의 의미 층위도 탁월하게 보여주어 역사 연구의 모범적 성격을 갖는다.

해석의 틀 저자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시대 전반에 걸쳐 원림과 그 경영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관영과 원림을 외적으로는 도시 구조와 내적으로는 정치 구조, 그리고 주체와 수용자를 서로 연관시켜 그 형성과 그 기능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통치의 문제와 도시 건설, 지역의 정체성도 충실한 사료와 함께 탁월하게 해명하였다. 관영 원림의 의미와 그 전개 과정을 추적해서 인간 세상과 격리된 자연 구현(은일, 격리형 자연)으로 이해되던 원림을 오히려 현실 세계 정치의 무대(출사, 기능의 장소)와 대비시키고, 이들의 모순을 조절하여 평형 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적, 시간적 해법이라고 제시한 해석의 틀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환경과 자연의 본질적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료의 성격과 해석 연구자는 관영 관련 문화재, 그리고 실록과 지리지, 문집, 회화와 지도, 일기, 사진과 도면, 발굴 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동원하였고, 무엇보다 사료를 잘 선별하고 있었다. 한자 문헌의 독해도 뛰어나며, 이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롭게 파악하는 능력도 보여주었다.

개념어들은 적절하고 특히 위계에 부합하고 있다. 과거 담론의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현시대의 상을 의식하고 개념어들을 경우에 따라 타당하게 번역해서 논지에 맞게 구성하는 장점도 있었다.

연구의 대상에서 실제 자연의 식생과 관련된 자료는 적게 선정되어 있다.